

제32회 대덕이노폴리스포럼 질의문

이승완 회장(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 황철주 대표를 박근혜 대통령이 중기청장으로 내정 한 것이 궁금했는데 발표하신 내용을 듣고 의문이 풀렸습니다.

시골 깡촌에서 태어나 별다른 배경 없이 창업을 하여 자수성가하신 과정 자체가 창조경제에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벤처업계에서는 실물경제를 잘 아는 황 대표의 중기청장과 김종훈 미래부 장관으로 내정 되었을 때 벤처업계에서 모두 환영을 하고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황 대표가 보유한 주식을 백지 신탁하여 2개월 내 매각해야하는공직자 윤리법 때문 중도 하차를 하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런 문제점 때문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 대기업들에 불공정 거래 관행 지금까지 문제되고 있는데 황 대표께서도 힘든 과정을 겪은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근 경제민주화와 중. 소기업 동반 성장 등으로 대기업이 타깃이 되고 있는데 저는 대기업의 장점인 국제 경쟁력은 떨어뜨리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경제성장이 3%에서 2.3%로 수정을 하였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세수가 상반기에 10조원 핑크가 났고 하반기에는 20조원이 핑크가 난다고합니다.

앞으로 저성장 기조와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불경기가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기업은 시장 역량이 크지만 혁신역량이 적고 벤처기업은 혁신역량이 강한 반면 시장역활은 미흡합니다.

대기업과 혁신 역량이 강한 기술벤처 기업들이 서로 파트너로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대기업이 M&A 시장을 활성화 시키도록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M&A 시장이 5% 밖에 되지 않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창업에 활성화 대안으로 M&A 시장 활성화를 꾀고 있는데 매수기업에게는 법인세 감면과 매입기업에는 증여세 부담 완화 그리고 대기업 계열사 편입을 5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어 중소기업으로 지원을 받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M&A 시장은 대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활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벤처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사주고 벤처 기업은 그 자금으로 기술 개발을 계속 공급하는 선순환 관계가 이루어지면 기술벤처기업들에 창업은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 대표에서는 대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주성엔지니어링에 전체인원 중 R&D 인원이 45%를 차지하는 데 전문 인력을 키우고나면 대기업에 뺏기는 어려움 과과 기업의 조직원들은 기업이 성장을 하면 성장 동력이 되지만 어려움을 겪게 되면 파괴동력이 된다는 점 때문 인재육성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매우 공감합니다.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황 대표 회사와 이곳 대전은 차이가 많습니다.

대덕은 1300여개의 벤처기업들이 종업원 20명 미만이 87%에 속합니다. 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전문 인력 확보입니다.

KAIST나 충남대 등 출신의 대부분 우수한 인재들이 대기업이나 서울에 근무하는 것이 로망입니다.

얼마 전 KAIST에 특강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대전 벤처기업들을 지원 희망하는 학생들을 물었더니 없더군요.

원인은 어머니의 벤처기업에 대한 부정적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자식이 스티븐 잡스를 닮길 원하고 직장은 안정된 곳을 다니기 원하고 있습니다.

대덕에는 30여개 정부출연연구원이 있고 2만5천여 명의 연구구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5% 정도를 기업에 파견근무를 시키면 전문 인력을 해소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연연에서 기술 이전을 해줄 때 인력까지 파견을 해주어서 기술을 상용화 할 때까지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견 연구원에게는 기업에 주식이나 스톡옵션을 가질 수 있게 허용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이 대안에 대해서 미래부와 간담회때 건의를 하였습니다.

파견 연구원들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열정적으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연구원들과 기업 간에 연결고리가 되어서 퇴직 후에도 기업과 관련을 가져 퇴직과학자들에게 일터도 만들어 주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들에게도 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